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6년 5월 27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제주, 스마트팜 ‘제빛나’ 시범사업 본격 추진-6면(2026.05.18.)	미래농업육성과	농업정보신문
○	청년농 선장, 기초부터 단단히...교육부터 정착까지 전주기 지원-9면(2026.05.18.)	기술지원조정과	한국영농신문
○	“작황 아쉽지만 값 잘 받았으면” -7면(2026.05.18.)	-	농민신문
○	[기고]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는 스마트팜 -14면(고덕훈)	기술지원조정과	삼다일보
○	농업·농촌 소식-13면	기술지원조정과	삼다일보
○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서둘러야-1면	-	제주일보
○	마늘 농가 한숨만 커진다-1면	-	제주일보
○	고품질 노지감귤 생산 격년결실 지원 호응도 저조-7면	-	제주매일
○	道, 도내 농지 3만8000ha 전수조사-4면	-	삼다일보
○	제주, 풋갈 출하 농장 233개소 지정-6면	-	한라일보
○	소금을 뿌린 듯 희부연 세상-5면	-	한라일보

(농업정보신문: 2026년 5월 18일)

○ 제주, 스마트팜 ‘제빛나’ 시범사업 본격 추진-6면

제주, 스마트팜 ‘제빛나’ 시범사업 본격 추진

농업 생산성 극대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제주형 스마트제어·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인 ‘제빛나’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내 시설농가에 최적화된 스마트농업을 도입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다.

‘제빛나’는 농업기술원이 지난해(2023년) 직접 개발한 제주형 스마트팜 시스템이다. 기존의 단순 감시 수준을 넘어, 축적된 생육·환경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한 최적의 모델을 시스템에 탑재해 하우스 환경을 알아서 자동 제어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센서 기반 구동기 자동제어 및 관수 예약 설정 등의 스마트 제어와 빅데

이터 분석을 통한 최적 생육 범위 제공 및 선도 농가 데이터 비교 등 데이터 통합 관리 기능이 지원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4년부터 연구 중인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생육관리모델의 성과를 실제 농가에 적용하고 그 효과를 꼼꼼히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기술원은 지난 2월 도내 레드향 재배 농가 4곳을 시범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개소당 1,200만 원(보조 70%, 자부담 30%)을 투입해 오는 5월까지 구동기 제어장치, 환경 측정장치, CCTV 등 스마트팜 필수 장비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스템 설치 후에는 단계별 생육 상태와 품질을 정밀 조사하고, 노동 투입 시간 절감률, 시스템 활용도, 농가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도는 향후 현장 시연



스마트제어·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제빛나’ 가동 모습

회와 결과 평가를 거쳐 ‘제빛나’ 시스템을 도내 전역으로 확산할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운찬일 농업연구사는 “제빛나 시스템 보급으로 시설 환경 관리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농가의 노동력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주 지역에 딱 맞는 스마트팜 기술 확산으로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5.18. 가겠습니다”고 말했다.

대응해 5.18. 가겠습니다
농업정보신문 6

(한국영농신문: 2026년 5월 18일)

○ 청년농 선장, 기초부터 단단히...교육부터 정착까지 전주기 지원-9면

청년농 선장, 기초부터 단단히... 교육부터 정착까지 전주기 지원

제주도, 현장 맞춤형 교육·4H 활동·창업 지원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

제주농업기술원(원장 김태곤)은 제주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조직·정착’을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으로 청년농업인 육성에 나선다.

농업 인력의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농업·농촌으로의 청년농업인 유인과 정착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제주농업기술원은 기초 역량 강화 교육부터 창업까지 전 과정에 걸친 지원으로 청년농업인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4개 과정 104회에 걸친 청년농업인 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변화하는 농업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기초과정인 ‘청년농업인학교’를 통한 기초 이론부터 심화과정인 ‘청년농업인 CEO 양성과정’을 통한 창업 준비까지 단계별 심

수 활용 기초교육을 통해 스마트농업 기술 활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또한 청년농업인의 영농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스타디그를 활동을 지난해 5월 20명에서 올해 8월 51명으로 확대 운영하며 자율 학습과 기술 교류를 통한 현장 대응 능력을 키운다. 스타디그를 활동으로 도출된 우수사례는 사업평가회를 통해 공유하고, 우수 그룹에 대해서는 도시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농업인 단체 육성을 통해 조직 활성화와 미래농업세대 간 교류를 확대한다.

제주특별자치도 4-H연합회(2개회 180명)를 중심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와 연계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주도내 29개교 816명을 대상으로 진로교육·도농교류·과제활동 등 학교 4-H 활동을 통해 농업 이해도와 진로 관심을 높여, 미래 제주농업의 잠재적 인재가 청

년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아울러 2개 사업에 총 7억 5,000만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청년농업인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한 ‘수요 맞춤형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경진대회 수상자 4개소에 총 3억 원을 지원하고, 농업 연구개발(R&D) 성과를 현장에 적용하는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사업으로 2개소에 총 4억 5천만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청년농업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농업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제주농업기술원 김윤정 농촌활력팀장은 “청년농업인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농업경영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교육부터 창업까지 단계별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향후에도 현장에 필요한 정착을 발굴 5.18. 다고 말했다.”

한국영농신문 9

(농민신문: 2026년 5월 18일)

○ “작황 아쉽지만 값 잘 받았으면” -7면

“작황 아쉽지만 값 잘 받았으면”

■ 제주 남도종 마늘 수확 현장

“지난달 비가 자주 오고 기온이 낮아 작황이 다소 아쉽지만 땀 흘려 농사지은 만큼 좋은 가격에 팔리길 바랍니다.”

14일 잦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의 한 마늘밭. 농민 이기순씨(68)는 ‘골갱이’(호미의 제주 방언)로 마늘을 캐 가지런히 두며 이같이 말했다.

제주지역 올해산 마늘이 수확기에 접어들었다. 농가들에 따르면 마늘은 크게 한지형과 난지형으로 나뉜다. 난지형은 다시 남도종과 대서종으로 분류된다. 제주는 전남 해남, 경남 남해와 함께 난지형 남도종 마늘의 대표 산지다.

현지 관계자들은 4월 중하순 생육기에 잦은 비로 병충해가 늘었고 밤 기온이 낮아 마늘이 충분히 자라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작황은 기대만 못하지만 늘어난 생산비 부담을 상쇄할 수준의 시세가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쳤다.

이씨 농장에서 수확작업에 힘을 보탠 강성방 대정농협 조합장은 “3월 말까진 작황이 좋았는데, 4월 구비 대기 때 낮은 밤 기온으로 생육이 원활하지 않았다”며 “충분히 성장한 후 수확하도록 농가들을 독려 중”이라고 말했다. 농협경제제주 제주본부 관계자는 “5월 들어 기온이 올라 다행히 크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했다.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때지만 산지 밭떼기가 얼어붙은 건 근심거리다. 대정읍 신도리에서 5950㎡



강성방 제주 서귀포 대정농협 조합장(왼쪽부터), 이춘협 제주농협본부장 등이 대정읍 일과리에 있는 마늘밭에서 갓 수확한 마늘을 들어 보이고 있다.

밤기온 낮고 비 잦아 생육 부진 재고 충분해 밭떼기 거래 위축 물량 처리 안되면 시세 악영향

(1800평) 규모로 마늘을 재배하는 정장훈씨(79)는 “포전거래를 위해 산지를 돌아다녀야 할 산지유통인이 올해는 자취를 감췄다”고 말했다.

강 조합장은 “지난해 이맘때 전년산 마늘 재고 부족으로 포전거래가 활발했는데, 올해는 재고가 충분해 서인지 유통인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6일 내놓은 ‘5월 양념채소 관측’에 따르면 4월말 기준 난지형 마늘 재고량은 1만4291t으로 추정됐다. 전년 동기(1만3768t)보다 3.8%, 평년(1만3876t)에 비해 3.0% 많다.

제주산 마늘은 농협 계약재배를 통한 매취와 산지유통인 밭떼기로 주로 거래된다. 밭떼기로 일정 물량이 처리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시세에 악

영향을 줄 수 있다.

제주농협본부에 따르면 올해 도내 마늘 생산예상량은 1만2608t이다. 이 중 농협 계약재배 물량은 48.8%(6154t)다.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관계자는 “농가·농협 등과 협의해 비계약 물량에 대한 처리방안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른 지역 남도종 마늘 주산지 상황도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춘선 해남 땅끝농협 전무는 “우리 지역 마늘 수확은 25일째 돌입할 전망”이라면서 “포전거래는 ‘아예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최근 깎마늘 시세가 지난해보다 낮아 햇마늘값이 높게 형성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남 새남해농협 관계자도 “지난해 9~10월 잦은 비로 파종이 10일 가량 늦어져 구가 작은 편”이라며 “3.3㎡(1평)당 생산량이 4~4.5kg은 돼야 하는데 올해는 제5.18.5kg 정도”라고 했다. 서귀농민신문 7자

(삼다일보: 2026년 5월 27일)

○ [기고]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는 스마트팜-14면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는 스마트팜

오늘날 'AI'와 '스마트'라는 단어는 일상과 산업 전반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개념이 됐다. 농업 분야에서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는 '스마트팜'이다. 도입 초기에는 단순한 자동화 설비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팜이 단순한 편의 기술을 넘어 농업의 미래를 이끄는 도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 축적을 위한 농가와 연구·지도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스마트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 그 자체보다, 현장에서 축적되는 생육 데이터의 중요성에 주목해야 한다. 양질의 데이터는 농업인의 경험과 노력에 더해, 지도·연구기관의 생육조사와 체계적인 관리·분석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축적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가 ^{5. 27.} ~~삼다일보~~ 14면 때, 스마트팜은 단순한 원격



고덕훈
제주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제어를 넘어 농업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 축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제주도에서는 2028년부터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할 계획이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청년농과 신규 농업인의 진입을 돕는 동시에 다양한 재배 경험이 축적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주 지역 환경에 맞는 생육 데이터가 점진적으로 축적된다면, 향후 제주형 스마트팜 발전의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스마트팜과 AI는 농업을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농업을 더 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를 올바르게 활용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삼다일보: 2026년 5월 27일)

○ 농업·농촌 소식-13면

■ 농업·농촌 소식

병해충 예방의 시작은 철저한 예찰, 피해 확산 전 신속히 방제합시다

▲노지감굴
 △여름비료 시용=5월 하순~6월 상순, 1년동안 주는 양의 질소 20%, 칼리 40%
 △병해충 방제
 - 잿빛곰팡이병, 꽃 70% 낙화 시 적용 약제 살포
 - 깍지벌레류, 철저한 예찰로 유충 발생시기에 적용약제 살포

▲키위
 △신초 관리=가지와 잎의 생육이 빨라지는 시기로, 적심·전정·가지유인

실시
 - 가지유인=발육지가 40~60% 경화될 때 기부에서 가지비틀기, 정부압박
 △적과=꽃잎이 떨어진 후 10~15일 경(수분 후 2주 이내) 소형과 및 기형과 위주 1차 적과
▲단호박
 △줄기 유인=아들줄기 2~3본을 양쪽으로 유인하여 배치
 - 아들줄기가 4개 이상 발생한 경우, 건실한 2~3본을 남기고 제거

△웃비료 시비=고랑에 NK비료 27kg/10a을 2회에 나누어 시비(전면살포 금지)
▲만생양파
 △관수=구 비대가 왕성한 시기로 15일 간격으로 물을 주되, 자연 강우량 및 배수환경 고려(다습할 시 습해, 병해 발생 위험 있음)
 △병해충 방제=노균병, 잿빛곰팡이병 등 예찰·방제
 - 수확시기 작물보호제 살포는 안전사용기준을 고려하여 결정
▲문의=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760-7531~3.

위기를 기회로! 표준시비 실천에 동참하세요

▲표준시비=토양검정을 통한 시비 처방서를 발급받아 작물에 필요한 만큼만 비료를 사용하는 것
▲표준시비 도입 실증사업 결과=관

행 대비 비료 사용량 △양배추 43% △브로콜리 36% △양파 26% △마늘 53.2% 줄여도 수확량·상품성 차이 없었음.



시비처방서 발급 방법

5. 27. 삼다일보 13

(제주일보: 2026년 5월 27일)

○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서둘러야-1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서둘러야

(31일 마감)

도, 농지 소재 읍·면·동서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오는 31일 마감됨에 따라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은 기한 내 접수해 달라고 26일 당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농가 소득 지원 제도다.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키우고, 5.27. 소득을 안정시키는 데 목
제주일보 1. 지난해 직불금 등록 정보

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같은 농업인은 31일까지 인터넷·모바일·자동응답전화(ARS)로 비대면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등 비대면 대상이 아니거나 등록 정보가 바뀐 농업인은 29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130만원이 정액 지급되고,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1ha당 136만원에서 150만원까지 구간별 단가가 적용된다.

신청을 마치면 등록증이 발급되고, 자격 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거쳐 12월쯤 직불금이 지급된다.

특히 올해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 기준이 상향 조정돼 지난해까지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업인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진유한 기자

(제주일보: 2026년 5월 27일)

○ 마늘 농가 한숨만 커진다-1면

가격이 떨어지고 소비까지 둔화되면서...

마늘 농가 한숨만 커진다

대정농협, 올해산 수매가 결정

지난해보다 kg당 500원 하락

올해산 제주 마늘 수매가 본격 시작됐지만 수매 단가 하락과 품위 저하, 소비 둔화 등이 겹치면서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제주지역 대표 마늘 주산지인 대정농협(조합장 강성방)은 올해산 마늘 수매가를 kg당 상품 3800원, 중품 3200원, 하품 2600원으로 결정하고 지난 24일 가수매를 진행했다. 계약 물량은 약 4000t 규모로 현재까지 약 900t가량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마늘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5.27%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주일보** 1장 먼저 수확이 이뤄지

는 만큼 전국 마늘 수매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수매단가는 지난해보다 낮게 책정됐다. 지난해 제주지역 농협의 마늘 수매가는 1kg 기준 상품 4300원이었지만, 올해는 상품 기준 3800원으로 500원 하락했다.

농가들은 생산비와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하면 최소 4400원 수준은 돼야 적정 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산 재고 물량이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는 데다 경기 침체로 소비까지 둔화되면서 마늘 시세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포전거래도 사실상 멈춘 상태다. 통상 제주 마늘 포전거래는 수확을 앞둔 5월 초·중순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지만, 올해는 재고 증가와 소비

부진 영향으로 거래 자체가 크게 위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정지역 농민들은 “재배면적은 줄고 작황도 좋지 않은데 가격은 오히려 내려갔다”며 “수입 물량 증가와 소비 침체 영향까지 겹치면서 농가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국 최대 남도종 마늘 주산지인 대정지역은 지난해 기준 마늘 재배면적만 605ha에 달하지만, 고령화와 인력난, 기후변화 영향으로 재배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대정농협 측은 올해 수매가격 결정과 관련해 생산량과 재고 상황, 시장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상 상황 영향으로 본격적인 수매는 오는 29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주리 기자

(제주매일: 2026년 5월 27일)

○ 고품질 노지감귤 생산 격년결실 지원 호응도 저조-7면

고품질 노지감귤 생산 격년결실 지원 호응도 저조

도, 2차에도 50ha 목표 미달 6월 2일까지 3차 접수
“내년부터 ha당 200만원 한도 상향·지속 여부 검토”

제주특별자치도가 격년결실을 통한 고품질 노지감귤 생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품질 노지감귤 저탄소 생산혁신농가 지원사업'이 제대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노지감귤원 재배 농가 중 격년결실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휴식년 해에 생산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고품질 노지감귤 저탄소 생산혁신농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격년결실 재배법은 감귤원에서 강제적으로 휴식년과 결실년을 교차로 설정, 휴식년에는 생육초기(5~7월)에 전정과 적과로 열매를 전부 따버려 무착과 상태를 유도하고 결실년에는 수관전체에 과실을 결실시켜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5.27. 격년결실 재배법을 도입하면
제주매일 7 고품질 노지감귤(2S-M) 생산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고 2년에 1회 수확으로 감귤원 관리가 용이, 생산비 투입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올해 사업량은 50ha, 지원단가는 ha당 200만원에 농가당 지원한도는 1ha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지난 1월 16~30일 과원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원신청을 접수한 결과 제주도 16농가 5.4ha, 서귀포시 32농가 16ha 등 48농가 21.4ha에 그쳤다.

이에 지난 3월 25일부터 4월까지 진행된 2차 공고에도 제주도 7농가 3.1ha, 서귀포시 20농가 8.5ha 등 27농가 11.6ha만 추가 접수했다.

이로써 2차에 걸친 지원 신청에 접수된 사업량이 총 33ha로 목표량에 미달하자 제주도는 5월 19일부터 6월 2일까지 3차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이처럼 이 사업 지원 신청이 저조한 것은 지원단가가 1ha(3000평)당 200만원으로 낮게 책정된데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주도가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한 지난해 참여 실적은 제주도 51농가 20ha, 서귀포시 67농가 26ha 등 118농가 46ha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농가가 7월까지 사업을 마치

면 행정시 현장확인을 거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보조금이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사업 효과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내년부터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거나 사업을 지속할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두성 기자

(삼다일보: 2026년 5월 27일)

○ 道, 도내 농지 3만8000ha 전수조사-4면

道, 도내 농지 3만8000ha 전수조사

오는 12월 30일까지 기본-심층 조사로 나눠 단계적으로 진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농지 관리 강화 정책과 연계해 농지 투기·불법 이용을 근절하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올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지난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도내 농지 약 3만8000ha 전체가 대상이다. 기본조사와 심층 조사로 나눠 단계적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7월까지 실시되는 기본조사는 농지 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공익직불금 등 행정 데이터베이스(DB)와 위성·드론 사진을 교차 분석해 실경작 여부와 불법 이용 의심 농지를 1차로 선별한다. 농지 소유 현황, 임대차 신고 여부, 농지은행 위5, 27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이 이삼다일보 4면이 의심되는 농지는 심층 조

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8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심층 조사는 10대 심층 조사군을 대상으로 실제 영농 여부와 무단 전용 여부 등을 현장 점검한다. 심층 조사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 경매취득, 농업법인, 외국인, 최근 10년 내 취득, 10년 내 관외 거주자 취득, 10년 내 공유취득, 과거 적발, 기본조사 결과 의심군 등이 해당한다.

특히 제주도는 불법 임대차와 무단 사용대차 행위를 점검하고 실경작 여부 확인과 현장 조사를 거쳐 불법 임대차 농지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전수조사회피 등을 목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사례에 대비해 실경작 임대농 보호와 상담 지원을 진행한다.

제주도는 불법 이용 농지는 위반 유형

에 따라 처분의무 부과, 처분명령,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해당 결과를 농지 대장에 직권으로 반영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제주도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구두 임대차는 서면 계약과 농지 대장 신고 등 제도권으로 유도하고 농지은행 임대 위탁 제도 활용도 안내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이용 질서 정상화를 위해 지난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임대농 보호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지가 투기 수단이 아닌 농업 생산 기반으로 관리되도록 이용 질서를 정상화하겠다”며 “실경작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사와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중 기자 tazan@samda일보.com

(한라일보: 2026년 5월 27일)

○ 제주, 풋굴 출하 농장 233개소 지정-6면

제주, 풋굴 출하 농장 233개소 지정

8월 1일~9월 15일 사이 출하

제주특별자치도가 풋굴의 안정적인 생산과 출하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풋굴 출하농장 233곳을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2일까지 농가 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과 행정시 검토를 거쳐 풋굴 출하 농장을 확정했다.

올해 풋굴 출하 농장은 제주시 117곳, 서귀포시 116곳 등 총 233곳으로 출하 예상량은 117만4320kg에
5.27.
한라일보 6

농업기술원은 지정 농장에 대해 6월 중 '풋굴 출하 전 과원 관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풋굴 출하 지정 과원은 풋굴 출하 농장 지정 리본을 부착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한 농가에는 풋굴 전용 포장상자 구입비(3500만원),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3600만원), 택배 및 물류비(5100만원) 등 총 1억22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출하 기간은 관련 조례에 따라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이 기간 외에 풋굴을 유통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소범기자

(한라일보: 2026년 5월 27일)

○ 소금을 뿌린 듯 희부연 세상-5면



5. 27.
한라일보 5

소금을 뿌린듯 희부연 세상 26일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농촌휴양마을회가 마련한 '2026 자청비 와흘메밀문화제'를 찾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메밀밭 사이로 난 소로를 산책하며 늦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강희만기자